

독립투사 조문기 선생을 기리며



함세웅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 조문기 선생이 지난달 5일(화) 향년 82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분의 고귀한 뜻과 삶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기리며 사랑과 존경을 표합니다.

조문기, 참으로 그분은 우리의 선생, 겨레의 스승입니다. 단순히 먼저 태어났기 때문만이 아니라 먼저 깨닫고 먼저 실천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불의에 맞서 한평생 정의를 실천한 영원한 청년, 불굴의 독립투사 조문기 선생은 1945년 일제 강점기 마지막 의열 투쟁인 부민관 의거 한가운데 우뚝 선 겨레의 등불이었습니다. 이미 그 한해 전인 1944년 열 여덟 살 나이에 일본 강관주식회사에서 3천여 명의 조선인 노동자들과 함께 민족차별에 맞서 파업을 주도한 열정의 청년노동자였습니다.

해방 후에도 청년 조문기의 독립운동은 계속됩니다. ‘대한애국청년당’을 조직하고 이승만의 단독정부수립을 온 몸으로 막고자 1948년 6월 2일에는 ‘인민청년군’을 결성하여 맞섰기에 1년 6개월의 옥고를 치르고 1959년에는 ‘이승만 암살 조작사건’으로 또 투옥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청년 조문기의 삶은 좌절과 아픔의 연속이었습니다.

독립과 해방이라지만 그것은 친일파들의 독립과 해방인 셈이었기 때문입니다. 해방 후 어느 날 정부 주최 행사장에 버젓이 앞자리에 앉아있는 친일파를 목격하고 분노와 함께 치욕을 체험한 청년 조문기는 하늘에 계신 선조들과 동지들 보기 부끄러워 머리를 숙이는 뜻으로 늘 중절모를 눌러 썼습니다.

“목숨 걸고 독립운동을 펼쳤는데 고작 친일파의 천국이 되었던 말인가?”

이렇게 밤마다 가슴을 치며 외치고 선배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 하던 선생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1965년 굴욕적 한일협정을 체결한 박정희는 반일 감정을 완화하고 자신의 친일 행적을 은폐할 정치적 술수로 원로처(국가보훈처)와 광복회를 만들었습니다. 당시 광복회는 친일파 후손들 위주로 구성되었고 항일 인사들의 후손들은 구색 맞추기에 불과했습니다. 사실 광복회는 지난 2002년 ‘민족정기위원회모임’이 친일파 708명의 명단을 공개했을 때 김활란, 김성수, 방응모 등 16명이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며 기자회견에 불참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광복회에 대해 조문기 선생은 무서운 몽둥이와 같은 분이었습니다. 또한 광복회의 정화와 쇄신을 위해 늘

직언하던 영원한 독립투사였습니다. 광복회가 친일파를 극복할 때 비로소 이 나라가 제대로 될 것이라는 조문기 선생의 외침을 우리는 오늘 모두 마음에 되새기고 실천을 다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친일 세력과 그 허수인 역할의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이 선생의 고귀한 삶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선생은 고향인 경기도 화성으로 내려가 한동안 세상을 등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위의 간곡한 청에 이끌려 다시 세상 한복판에서 ‘새로운 독립운동’을 시작했습니다. 1991년 민족문제연구소가 출범하자 ‘친일청산이 바로 오늘의 독립운동이다’라는 신념으로 투신했습니다. 선생은 정부가 개최하는 3·1절과 8·15 광복절 행사에는 부끄럽다며 참석을 마다했고 선생의 마지막 독립운동이며 소원인 ‘친일인명사전’ 편찬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분은 참으로 불의 앞에서 목숨을 걸고 정의를 실천한 스승이었습니다. 그러나 언론과 연극은 선생을 외면하고 때로는 어이없게 조롱도 했습니다. 드라마 ‘야인시대’가 김두한을 부민관 폭파사건의 주역으로 탈바꿈시키고, 친일파들을 오히려 민족운동가로 둔갑시키는 요지경 사태

를 일갈해도 아무도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선일보의 지난 1월 말에도 부민관 의거를 폄하하는 글을 실었습니다. 조문기 선생은 병상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미완의 해방, 미완의 독립, 미완의 통일 때문이었습니다. “통일도 친일청산도 이루지 못한 광복은 과연 친일파들만의 광복인가?” 라고 선생이 우리 모두에게 되물었습니다.

“나의 독립운동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독립운동사는 독립운동가만의 역사가 아니다. 미래를 그리고 후손을 위한 운동이다. 과거사 청산은 친일파 청산부터 첫발을 내디뎌야 하고, 친일파 청산이 안 된 지금의 한국 사회는 여전히 독립운동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슬픈 조국의 노래>의 한 구절입니다.

조문기 독립투사의 삶은 민주화와 통일운동으로 이어 집니다. 제 2의 독립운동, 제 2의 민주화운동은 바로 민족정기를 되찾고 민주주의의 바른 가치를 실현하는 일입니다. 조문기 선생의 정신을 되새기며 우리 사회의 참된 민주화 실현을 위해 함께 투신할 것을 이 3월에 다짐합니다.